

## 몽골 나담축제 복식에 관한 연구

홍 정 민

대구가톨릭대학교 패션산업학 전공 교수

### A Study on the Costumes of the Mongol Naadam Festival

Jung-Min Hong

Professor, Dept. of Fashion Industr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02. 9. 10 루고)

#### ABSTRACT

This study revolves around the costume of the Naadam festival worn in the opening ceremony, during competition and the costume of the public. their purpose are two fold. First, they are to be the main reference for the diverse Mongolian costumes that have been researched. Secondly, they will help us understand better the culture that revolves around Mongolian costum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 1) The opening ceremony costume : The opening ceremony starts with a procession of soldiers with 9 flags. The flags are made from the hairs of white horses and they signify peace and tranquility, ever since the beginning of Chinggis Khans time. The costumes resemble a European military uniform.
- 2) The costumes for competition.
  - ① Wrestlers' costume comprises of a jacket with sleeves but no front and shorty shorts of red or blue colored silk, a traditional hat and traditional boots.
  - ② Archers' costume comprises of their traditional costume, deel, hat and boots.
  - ③ Horse riders who are usually children wear a comfortable and simple jacket and pants.
- 3) The costume of the public : The general public that attended the festival were dressed in a western fashion but differ according to different age groups
  - ① The costumes of the younger Mongolian : The majority of the men wore traditional costumes that were appropriate to the festival, the women did not as they were more prone to the influence of fads of western cultures and dressed in a more daring fashion. In addition, the children also dressed in a more modern western fashion.

---

\* 본 논문은 2001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② The costumes of the elderly Mongolian : The elderly, oblivious of whatever season it was, were dressed in a more traditional fashion which is the deel

Key Words : Mongol Naadam festival(몽골 나담 축제), the opening ceremony costume(개막식 복식), the costumes for competition(경기복식), the costume of the public(일반인 참가자들의 복식)

## I. 서론

몽골은 21세기에 드물게 중세적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나라로서, 우리 나라와는 같은 몽골리안으로 역사, 언어, 민속학적으로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으나 고려시대 13~14세기 몽골에 의한 150년간의 지배를 경험한 우리에게 친숙한 이웃이라기 보다는 침략자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갖게 하였다. 그러나 몽골이 몽골인민공화국에서 몽골공화국으로 민주화되고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함으로써 한국과 몽골의 관계는 급속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몽골국은 1206년 칭기스칸이 주변의 중앙아시아 스텝 여러 부족을 통합하면서 성립되었고, 이어지는 정복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대제국을 형성하여, 13·14세기에는 유라시아의 대부분에 걸쳐 정치적 질서를 확립하고, 동서간의 문화와 경제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등 평화상태를 유지하는 Pax Mongolia를 이루기도 한 나라이다. 그러나 14세기 말 이후에는 적은 인수로 중국과 러시아라는 인접한 강대국들에 의한 외침에 시달려야했으며, 척박한 기후와 광활한 초원에서의 유목생활을 영위하여야 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주변 강대국과의 전쟁에 대비한 군사들의 힘을 기르고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필요로 했으며, 또한 유목생활에서도 필요한 말타기, 활쏘기, 씨름 등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게 되었다.

나담축제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으며, 칭기스칸시대부터 유래되어 내려온 유목민적인 전통과 청의 지배에서 해방된 시기를 기념하는 몽골인 민혁명기념축제는 근대적 요소가 합해진 몽골의 가장 큰 여름축제로서 개막행사를 필두로 전통적

인 3대 민속경기인 씨름, 말경주, 활쏘기가 개최되며, 전국민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이다.

본 연구는 몽골의 기층문화인 유목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나담축제에 관해 개막식 행사복식과 3종의 씨름, 활쏘기, 말경주 경기복식을 비롯하여 여기에 참가하는 일반 몽골인들의 복식에 대한 다각도의 조사 연구에 의해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본 행사복식과 축제에 참여하는 현재 일반 몽골인들의 복식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현재의 나담축제의 기수단, 무용단, 3종 경기복식 종류와 특성, 그리고 참가자 일반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복식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2000년 7월에 거행된 나담축제 현장에 참석하여 수집한 자료와 2002년 6월 제 2차 현지 방문에 의해 수집한 자료 및 문헌 중심과 그리고 현지 학자의 자문을 받아 연구하였다.

## II. 몽골복식문화 형성의 배경

의복은 자연과 인간, 사회문화적 환경간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몽골복식문화 형성의 배경으로서 자연환경과 몽골에 인접해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문화접촉에 의한 영향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 1. 자연환경과 몽골복식

의복이나 음식 및 주거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몽골은 동경 87.4도에서 119.6도 사이, 북위 48.6도에서 52.1

도 사이로 아시아대륙의 중앙에 위치하여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인 건조한 냉대기후지역에 속하며 연평균 기온이 영하 3℃ 정도이다. 일년 중 6개월 이상이 0℃ 이하이며, 가장 추운 1월은 전국평균이 -15℃~-33℃이고 가장 더운 7월은 14℃~23℃로 여름은 덥고 겨울은 혹한으로 연교차가 매우 크다<sup>1)</sup>. 또한 일교차도 30℃나 그 이상으로 몽골의 하루에는 사계절이 교차된다고 말할 정도로 온도 변화가 심하다. 연간 강수량은 200~220 mm로 매우 건조하고 공기가 상쾌하여 코발트 색깔의 하늘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국토 전역이 해발 1,000 m를 넘는 고원 지대이고, 초원이 전체 국토의 70% 정도로서, 목축에 알맞은 대초원이 전개되어 있어 농업보다는 목축을 주로 하고 있다<sup>2)</sup>.

이와 같이 몽골고원은 건조하고 추워서 두꺼운 의복이 필수적인 것으로, 몽골제국 성립전까지 가죽이나 동물의 가죽으로 의복을 만들어 입는 관습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대제국 성립 이후는 정치적, 사회적인 영향으로 고유의 몽골복식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 2. 주변국 문화접촉과 몽골복식

몽골은 총 국경선의 길이가 8,158 km로 이중 북쪽 3,485 km는 러시아와, 남쪽 4,673 km는 중국과 접하여 중국과 러시아 양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로서<sup>3)</sup> 이 두 강대국은 몽골에 인접해 있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몽골복식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들 두 나라와의 문화접촉을 중심으로 하여 몽골복식문화 형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 보았다.

### 1) 역사적 배경

몽골족은 8세기 무렵 후룡강 상류 유역에서 처음 역사상에 등장하였으며, 11~12세기에 걸쳐 서서히 서진하여 그 세력을 넓혀가 1206년에는 칭기스칸을 중심으로 유목민족 사상 가장 거대한 정복력을 지닌 대몽골제국을 탄생시켰으며, 금, 파레즘, 러시아 등 동서양의 각 지역을 유린하면서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신속히 대세계제국

을 구축하였다. 13세기말에는 송조를 멸망시키고 중국대륙을 정벌한 후 쿠빌라이는 국호를 중국식인 원으로 제정하고 중원을 통치하기 위해 중국식 체제를 갖추어 원조에는 언어 풍습 제도 예술을 비롯한 다방면에서 몽골풍과 중국풍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sup>4)</sup>.

내부분열상을 보이고 있던 원조는 명 태조 주원장에게 멸망당하여 중원에서 몰려나 북쪽 몽골고원으로 후퇴하여서 계속 명과 대립하며 몽골재통일을 위한 시도를 하였다. 명은 이러한 몽골세를 방어하기 위해 명대 만리장성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6세기부터는 동진해 오는 러시아의 세력과, 17세기부터는 북진해오는 청조의 세력에 맞서 투쟁하게 되었으며 1689년에는 네르친스크조약에 의해 부리아트몽골을 비롯한 북부지대가 러시아에 합병되고, 1691년에는 외몽골이 공식적인 항복으로 완전히 청에 복속됨으로서 내외몽골 모두 1907년 청조가 멸망할 때까지 속국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몽골을 견제하기 위한 청조의 라마교 권장 정책에 의해 몽골은 경제 파괴와 인구 감소를 가져와 라마교는 몽골족에 끼친 정신적, 예술적, 의학적인 공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몽골족을 몰락시키는 역할을 하였다<sup>5)</sup>. 17세기 이후 청조에 침략된 몽골은 세계 발전에서 늦어져 외부세계로부터 떨어져 유목문화적 관습의 특징만이 남게 되었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조가 붕괴하자 독립을 선포하였다. 내몽골지역은 중국인들의 집단이주로 이미 중국화가 진행되었으며 러시아령 브리아트도 러시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외몽골만을 중심으로 독립을 위한 혁명이 진행되어 러시아의 원조를 받아 1921년 입헌군주제의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날이 7월11일로 현재의 독립기념일이다. 1924년 군주 活佛이 사망하자 공화제로 고쳐 국명을 몽골인민공화국(Mongolian People's Republic)으로 정하고 소련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대외경제연구소, 1995). 이로부터 몽골은 정치, 사회, 경제 등의 면에서 소련의 위성국 상태로 되어 그 절대적 영향을 받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사회주의 쇠퇴와 민주화 물결을 타고 마침내 1992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몽골국(Republic of Mongolia)이 성립되었다.

위와 같은 몽골의 역사는 1206년 칭기스칸 즉위 해부터 1368년 원조 붕괴, 명조 성립까지 몽골이 주체로 있으면서 중국의 영향을 받은 시기인 대몽골제국 시기, 1368년부터 1691년 내몽골에 이어 외몽골이 청조 지배하게 들어간 시기까지 몽골고원에서 독립해 있으면서 중국과 대립한 시기, 1691년부터 1911년 몽골이 독립을 선언한 해로 완전히 중국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된 청조 지배 시기, 1911년 이후 러시아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게 되는 독립혁명 및 외몽골 독립시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sup>6)</sup>.

## 2) 중국문화 접촉과 몽골복식

몽골은 남쪽으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정복과 피정복의 역사를 거듭하여왔으며, 원조대에는 몽골이 중원을 지배하기 위해, 청조대에는 몽골을 지배하기 위한 정책에 의해 중국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몽골의 고유복식은 북방유목민족의 복식으로서 원래 북방민족들은 주변 부족들이나 정주민족에 대한 끊임없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한과 보온 및 기마와 노숙에 편한 의복을 입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즉 좁은 소매, 직령(直領)의 장포(長袍)에 허리띠를 매는 형태로 속에는 저고리와 바지를 착용하며 장화를 신는 형태였다. 또한 유목생활을 영위하는 몽골인들의 의복재료는 거의 대부분 가축에서 얻어져 몽골비사에도 언급되어있다<sup>7)</sup>.

그러나 몽골이 주변제국을 완전히 제압하고 세계제국을 건설한 후부터는 정주민족의 직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차적으로 커졌으며, 원대에 이르러서는 소수의 지배계층으로 다수의 피지배계층을 다스리기 위한 문화의 수용 내지 동화는 필연적인 것이다. 1321년에 이르면 천자면복, 백관제복, 조복, 공복 등을 한식(漢式)으로 제정하였다<sup>8)</sup>.

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된 시기는 청의 속국으로 된 시기로 몽골복식문화의 청조화가 이루어졌다. 오늘날의 몽골의 대표적인 전통복식인 델(deel)은 세운 깃, 오른 여밈, S자 여밈으로된 장포 형태로서, 만주족복식에 근거한 청조복식의 두드러

진 특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특히 청조복식의 두드러진 특징인 馬蹄袖 부착형 소매(말발굽 형태의 소매부리 장식이 부착된 소매), 좁은 소매통, 남녀복식이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 등이 1920, 1930년대 이후 몽고복식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sup>9)</sup> 청조 지배하의 몽골복식에서 청조복식과의 동일화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다. 다민족국가인 몽골에서는 민족에 따라 색상과 재단, 델의 깃과 소매의 끝단 처리, 장식 등을 달리 하고 있지만 현재 몽골국은 85% 이상이 할호몽골인으로 이들이 복식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복식에 나타나는 민족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몽골의 전통의복에서는 청 복식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나 한냉, 혹서의 기후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각색의 모자는 몽골복식의 특징이던 특징이며, 그 밖에 세부적인 장식이나 헤어스타일 및 머리장식, 장신구 면에서는 몽골만의 전통을 고수하였다.

이와 같이 청조화된 복식이 1920~30년대 몽골의 전통복식으로 되었고 또한 오늘날 몽골국의 민족 및 민속복으로 정착된 것은 청조에 의한 오랜 몽골 지배에 의한 것이겠으나 청조가 흉노, 선비, 요, 금, 원으로 이어져 내려온 동북, 북방민족의 복제를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같은 북방민족 계통인 몽골인들에게도 쉽게 수용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 3) 러시아문화 접촉과 몽골복식

몽골과 러시아와의 접촉은 대몽골제국 바투의 서역원정으로 건설된 킵차칸국(1237~1502)으로부터이고 킵차칸국은 1382년 모스크바 점령이후 1세기 이상 러시아를 지배하였다. 킵차칸국의 지배자들은 초창기부터 유목민족의 전통과 정복된 정착지역의 전통관습을 조화시켜나갔다. 그러나 원조 멸망이후 몽골의 세는 약해지고 16세기 중반부터 러시아 세력이 시베리아에 진출하여 점차 몽골족 거주지역에 유입되었다.

몽골이 본격적으로 러시아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은 러시아가 몽골독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 1920년대 전후부터로, 몽골은 러시아의 원조를 받

아 1921년 독립하였으며, 1924년에는 소련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러시아와 함께 연합군의 편으로서 일본과 싸워 승리하였다. 1956년 체첸발이 인민혁명당 서기장이 된 후 당내 친 중국 파를 숙청하고 친 소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와 같이 정치, 사회, 경제 등의 면에서 소련의 위성국 상태로 되어 몽골이 민주화되기 전까지 그 절대적 영향을 약 70년 동안이나 받아왔기 때문에 현대 몽골인의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 특히 의생활에서 러시아가 중심이 된 구 소련을 본받은 서구 스타일을 많이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몽골은 동서양이 공존하는 나라라고 하며 얼굴은 동양, 사고방식은 서양식이라고 하고 있다.

러시아 문화는 몽골의 서구화에 영향을 미쳐 일부 전통복식의 구성 요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몽골의 전통복식에서 각양각색의 전통적인 모자의 착용은 몽골만의 특징이나, 1930년대부터는 전통 모자와 함께 유럽식 중절모가 애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구 소련을 통해 유럽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전통모자 대신 젊은이들 사이에 유럽스타일을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이다.

### Ⅲ. 나담축제 복식

몽골의 나담축제는 몽골국이나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 러시아의 브리야트족 거주지역 등 몽골족이 거주하는 모든 지역에서 작게는 마을 단위로 크게는 국가 단위로 행해지는 몽골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개막식 행사복식, 3종 경기복식, 참가자 일반인들의 복식을 몽골국의 나담축제를 중심으로 복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나담축제의 기원

나담은 '에른 고른 나담(eriyn gurvan naadam)'의 준말로 '남성의 3종 경기'라는 의미로 남성축제를 뜻하며, 나담은 '놀다'라는 뜻의 몽골어 '나다흐'에서 유래된 말로 게임 또는 시합을 의미한다<sup>10)11)</sup>.

나담축제의 기원은 흉노, 거란, 선비, 유연, 돌궐 등 중앙아시아 유목제국들의 제천행사에서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제천행사 시 거행된 씨름, 말경주, 활쏘기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으며, 말을 타고 활을 쏘아 짐승을 잡는 수렵을 즐기는 것은 유목민족들의 공통의 습속으로 특히 몽골족계의 유목민족인 거란에서는 이것을 오락성이 가미된 놀이로 재구성하여 즐겼던 흔적들도 발견되고 있다<sup>12)</sup>.

몽골족의 나담은 칭기스칸이 원정에서 돌아와 벌인 코릴타 및 축제에 기원하며, 이것은 1224년 서역원정에서 돌아와 벌인 코릴타 및 축제의 사격대회에서 우승한 예승계가 세운 紀功碑의 비문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몽골제국시기에 거행되었던 활쏘기나 말경주, 씨름은 군사훈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진다<sup>13)</sup>.

군사훈련적인 성격이 강한 3종경기가 원제국시기가 되면 점차 오락적인 성향을 띠기 시작하며, 복원시대에는 종교적인 색채가 첨가되었다. 나담을 오보제 즉, 우리 나라 서낭당과 비슷한 오보에 사람과 가축을 보호해 달라고 제사드리는 행사에서 비롯하였다고도 하는데<sup>14)</sup>, 오보제를 지낸 후 3종경기가 개최되었기 때문이며, 오보제는 나담과 동의어가 될 만큼 몽골의 전통풍속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몽골의 나담은 '오보의 나담'이라고 불려지며 외면에 종교적 색채를 띄게 되었다. 오늘날과 같은 3종경기 형태의 나담이 최초로 완벽하게 선보인 때는 1640년대 부터이고, 나담이 전 몽골족이 거주하는 모든 곳으로 확산된 원인은 1640년대 이후의 청조에 의한 라마교 권장정책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복원시대부터 몽골인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자리잡은 라마교가 토착신앙인 오보제도 흡수하게 되었고, 18세기부터는 라마교 지도자들까지 참여하는 대규모의 나담으로 성장하였으며, 몽골의 성산인 복드한산, 헨티한산에 제사지내는 기능도 겸하게 되어 이 나담은 '복드한, 헨티한산의 나담'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게 되었고, 청초에서 청말로 시대가 내려갈수록 군사적인 색채가 사라지고 종교적이고 오락적인 요소가 짙게 나타났으며<sup>15)</sup>, 이러한 나담은 사회주의인민혁

명 이전까지 존속되었다.

1921년 몽골 인민혁명 성공 후에는 혁명 성공을 기념하여 혁명정부에 의해 8월에 시행되었던 축제 개최일을 매년 7월 11일로 고정함으로써 나담은 인민혁명의 승리를 자축하는 의미를 합치게 되었다<sup>16)</sup>. 즉 나담은 1921년 이후에는 몽골의 국가적 혁명의 승리를 축하하는 공식적 행사로 되어 국가 의식을 고취시키는 군사적인 축제의 의미가 부각 되게 되었다. 1990년대에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고 민주화, 시장경제체제로 되면서 민족적, 전통적 사상이 부활하고 전통문화유산을 발전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나담축제를 전통축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나담축제는 처음은 몽골을 지키기 위한 전투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서부터 비롯하였다고 하겠으며,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변화하였으며 오락적인 요소가 가미되었고 오늘날에는 몽골의 전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즐기는 축제로 되었으며, 세계에서 드물게 전통이 살아있는 축제이다.

## 2. 나담축제 참가자 복식

### 1) 개막식행사복식

개막식 행사는 말을 탄 병사들이 토크라 불리우는 아홉 개의 기를 들고 나담경기장에 입장하면서 시작된다<그림 1>. 이들의 복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기수단의 복장<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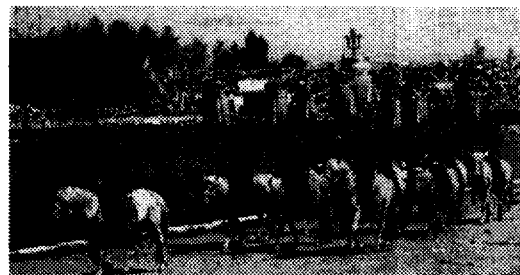
① 의복은 붉은 색과 푸른 색으로 구성된 유럽식 군인의 복장을 하고 있다.

② 모자는 의복이 러시아로부터 받아들인 서구식 스타일인데 비해 몽골의 전통스타일을 고수하여 몽골 전통의 장군모 '진진말가이'를 쓰고 있다. 이 모자의 뾰족하게 올라간 위쪽 끝은 하늘을 향한 발전, 번영, 풍부함을 상징한다<sup>17)</sup>

③ 기는 기수단이 9개의 백색기를 들고 입장한다. 흰색은 몽골에서 평화와 안녕을 상징하는 색이다. 9는 몽골 최고의 길상 숫자<sup>18)</sup>로 9개의 부족연

맹체를 상징하며, 술데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깃발은 백마의 머리와 꼬리 부분의 털로 만들어진다. 깃발은 국가적인 행사를 거행할 때 등장하는 상징물로서 흰색 깃발은 평화와 안녕을 상징하여 흑마의 갈기로 만들어진 흑색 군기가 적군을 겁주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sup>19)</sup>과 대조된다. "호랑이해(1206년)에 오논강변에 모여 아홉 개의 다리를 가진 백색기를 세운 뒤 칭기스칸에게 칸이라는 칭호를 주었다." 몽골비사 202절<sup>20)</sup>은 대몽골제국 성립을 선포할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그 당시 9개의 백기를 세웠던 풍습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경기장 전면에 9개의 백기가 세워진다. 유목문화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말의 털로 만든 깃발 숭배라는 징기스칸시대부터의 전통을 현재까지 이어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30·40년대까지는 이러한 행사가 전통가옥 겐을 지어 행하였으나 50년대 이후부터는 현대적인 건물인 스테디움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림 1> 기수단이 9개의 기를 들고 입장하는 모습  
(2000년도 나담축제에 참석하여 직접 촬영)

#### (2) 무용단의 복식

기수단에 이어 무용단의 전통 무용공연이 이어진다. 무용의 주제는 대부분 그들의 유목생활과 관계하여 말타기, 연료로 사용되는 소똥 주워모으기 등을 춤으로 표현한 것이다<그림 2>. <그림 3>은 하다크를 들고 춤을 추는 모습이다. 하다크란 담청색이나 흰색비단으로 만든 긴 천으로 두 색깔의 하다크 중 흰색으로 만든 것을 최고로 간주하는데 이는 흰색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최초의 색깔이라는 믿음 때문이다<sup>21)</sup>. 백색은 풍부, 순결, 평화를 의미하며 백색 음료인 마유의 색, 어머니색이기

도 하다. 청색은 하늘의 색, 아버지색으로 영원, 충실을 나타낸다<sup>22)</sup>.



<그림 2> 유목생활을 표현한 전통무용  
(2000년도 전국 나담축제에 참가하여 촬영)



<그림 3> 하다크를 든 전통의상 차림의 무용단

## 2) 3종 경기복식

3종 경기는 이를 통해 군사들의 힘을 기르고 전투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하였기 때문에 남성들만의 경기였는데 사회주의혁명 이후에는 말경주와 활쏘기에 여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 (1) 3종경기의 특징

#### ① 씨름

북방기마병들이 육탄전을 벌일 때 쓰는 무술에서 비롯한 몽골 씨름은 경기장소의 제한이 없고, 체급별 경기가 아니며, 경기시간의 제한이 없이 상대를 넘어뜨려야만 경기가 끝나는 방식으로 특별한 기술보다 강인한 신체를 요구하는 경기로서, 현재 나담축제에서 거행되는 씨름의 형식은 몽골족

의 다수 민족인 할호족의 씨름이다.

모자를 후견인에게 맡기고 난 후 경기가 시작되고, 씨름을 하기 위해 입장할 때와 승리하였을 때 선수는 하늘을 존경하는 표시로 팔을 벌려 휘지으며 가루다(숫매와 비슷하며 상상의 새)가 양 날개를 상하로 움직여 위엄을 과시하는 모양의 춤을 춘다. 경기가 끝나면 승리한 자는 후견인으로부터 모자를 받아서 쓰고, 패한 자는 상의인 조덕의 끈을 풀고 승자의 오른쪽 어깨 아래를 통과한다. 그 후 승자는 가루다춤을 추면서 중앙에 게양된 기를 오른쪽으로 한바퀴 돌고 승리의 포즈를 취한다<sup>23)</sup>.

#### ② 활쏘기

몽골의 활은 탄력이 강해서 약한 사람은 시위를 당기기가 힘들 정도로 강한 팔의 힘을 요구하는 경기이며, 몽골 활에는 양궁의 조준구멍, 안정기 등의 부착물이 없어 활쏘기는 전적으로 선수의 능력에 의존한다<sup>24)</sup>. 몽골 활쏘기시합에는 남녀노소 모두 참가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주로 3, 40대중반의 남자가 주로 참가하며 사정거리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10m 짧게 차이를 둔다.

#### ③ 말경주

말은 몽골인들에게 생활수단이자 생활 그 자체로서, 몽골의 말달리기 경기는 말을 다루는 기수들의 능력을 겨루는 시합보다는 말의 능력을 겨루는 시합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말달리기 경기를 위한 준비는 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련에서부터 시작된다.

몽골의 말경주는 기수의 기량보다 말의 기량을 겨루는 경기로서 기수에 관계없이 말의 나이에 따라 나뉘어 거행되며, 경마거리도 말의 나이에 따라 정해진다. 기수들은 5~13세 정도의 어린아이들이고, 초기에는 성인들이 기수로 출전했었으나 기수가 가벼우면 말의 지구력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꼬마 기수로 바뀌었다. 공산화이후에는 남녀평등의 사회주의 문명의 영향으로 여자아이들도 기수로 참가하게 되었다.

(2) 3종경기 복식

① 씨름선수복식<그림 4, 5>

신발은 앞쪽 코가 올라간 가죽으로 된 장화형태의 전통신을 신는다.

씨름선수들의 복장은 상의, 하의, 모자 및 장화로 구성된다.

상의 '조덕(zodog)'은 가슴은 없고 등과 소매만 있는 옷으로, 양팔을 길 수 있도록 소매가 달렸고, 등에서 좌우로 드리운 끈을 배꼽 근처에서 묶어 준다. 따라서 가슴이 완전히 노출되는 독특한 형태이다. 살바가 없는 몽골씨름에서는 상의가 대신 붙잡



<그림 4> 후견인과 함께 서 있는 씨름선수



<그림 5> 대기하고 있는 중견 씨름선수

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하의 '쇼닥(shuudag)'은 짧은 팬티형태이다.

소재는 상의와 하의 동일하며, 붉은 색(붉은 갈색도 포함)이나 푸른색 비단 질감의 질긴 천을 여러 겹으로 겹쳐서 흰색 실로 여러 줄의 스티치를 해준다. 상의와 하의의 뒤쪽에는 길상문양을 스티치한다. 상·하의는 같은 색깔로도 하지만 대체로 서로 색깔을 달리하여 변화를 준다.

모자는 위쪽 끝이 뾰족하게 위로 올라간 형태인 '진진말가이'를 착용한다. 모자는 입장할 때 쓰지만 경기를 할 때 심판에게 맡기고 경기가 끝난 후에 이긴 자만이 승리의 상징인 모자를 받아 쓸 수 있다. 추운 날씨가 많은 몽골인들은 일반적으로도 모자를 매우 중요한 복식의 요소로 취급하고 있다.

신발은 앞쪽 코가 올라간 가죽으로 된 장화형태의 전통신을 신는다

② 활쏘기 선수복식<그림 6>

사수들은 몽골의 대표적인 전통복식을 착용한다. 현재의 몽골의 전통복식인 델, 모자, 전통신발로 구성된다. 선수들이 착용한 전통복식인 델(deel)은 면이나 비단으로 된 여름용으로 형태적으로 남녀구분이 없었고 색상, 장식에서만 차이가 났다. 색상에 있어서 남성용은 주로 청색, 짙은 녹색, 회색, 갈색 등 어두운 색조를 띠며, 여성용은 선명한 붉은 색, 자주색, 녹색, 청색 등 밝고 선명



<그림 6> 활쏘기 선수들  
(2000년도 나담축제에 참가하여 촬영)



한 색을 사용했다. <그림 6>의 두 번째 오른쪽에서 서서 시합하고 있는 여성선수는 색깔이 화려하고 문양이 있는 소재의 델을 입고 신발도 흰색 부츠를 신기도 있다. 모자는 씨름선수와 같은 형태의 전통모자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림 6>에서는 남성선수들이 전통 모자와 함께 유럽식 중절모를 병행해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의 영향이다.

신발은 몽골 전통신으로 앞 코가 올라간 소가죽으로 만든 긴 장화 형태이다.

③ 말경주 선수복식<그림 7, 8>

말을 타고 달리기에 편한 형태인 짧은 상의와 바지를 착용한다. 상의는 허리아래까지 오는 짧은 길이이고, 하의는 중간넓이의 가랑이 폭에 허리에 서 끈으로 조여서 입는 형태이다(임명미, 1992). 어린 기사들에게 어울리는 밝은 색깔에, 왕관 모양의



<그림 7> 어린이 기사



<그림 8> 어린이 기사들이 말경주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

관으로 머리를 장식했다. 등이나 가슴에 번호표를 붙인다. 말경주는 빠른 속도 및 원거리에서 진행되므로 직접촬영에 어려움이 있어 사진은 문헌 및 인터넷을 인용하였다.

(3) 일반인들의 복식

몽골이 개방되기 전까지는 다수가 전통복식을 착용하였다고 하나 현재는 노인층과 남자들만 전통의상을 착용하고 있었다.

① 노인층의 복식<그림 9>

노인들은 남녀 모두 몽골의 전통복식을 주로 착용하였다. 그러나 옷만 보면 종족을 구별할 수 있었던 과거의 전통적인 여러 요소들은 사라지고 할호 몽골인의 대표적인 델을 입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사수들의 복식에서와 남녀복식에서의 차이는 소재에서 나타났으며, 옷을 여미는 장식인 단추에서 남성은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를, 여성용은 실로 꼬아준 매듭단추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남자와 달리 여자들은 모자는 착용하지 않았다.



<그림 9> 지방 나담에 말경주를 구경하기 위해 참가한 일반인 노인과 어린이 (2000년도 전국 나담축제에 참가하여 촬영)

② 젊은층의 복식<그림 10>

젊은 남자들은 전통복식과 서구식 복식을 함께 착용하였으나 젊은 여성들은 거의 서구식 옷차림이었으며, 더욱 몸매를 드러낸 개방적인 옷차림을 즐겨하며, 말에 타고 있는 젊은 연인들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몽골의 날씨는 여름이라 일교차

가 심해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지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들이 몸매를 노출하는 차림을 하는 것은 일찍부터 러시아의 유럽식의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 10> 말을 타고 전국 나담 말경주를 구경하는 커피들 (2000년도 지방 나담축제에 참가하여 촬영)

③ 어린이들의 복식<그림 11, 12>



<그림 11> 지방 나담 말경주를 구경하기 위해 참가한 전통의상 차림의 남자아이 (2000년도 전국 나담축제에 참가하여 촬영)



<그림 12> 씨름경기장이 있는 스타디움 앞의 가족 (2000년도 지방 나담축제에 참가하여 촬영)

어린이들은 서구식의 편한 옷차림이 주이고 울란바타르 나담축제가 진행되는 지방에서 예선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지방나담에 참여하는 남자 어린이들은 전통복식을 착용하고 있었다.

#### IV. 결 론

나담축제는 몽골의 유목 문화적인 전통의 축제이며 초기에는 종교적인 의식 행사였지만 중국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혁명의 성공을 자축하는 군사적인 축제 행사였다. 그러나 몽골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전통 축제의 의미를 강조하게 되었다.

변화해 가는 몽골 복식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세계에서 드물게 전통이 살아있는 나담축제의 개막식에 2000년, 2002년에 직접 참가하여 개막식 행사복식, 3종 경기복식, 일반인 복식을 수집한 자료와 문헌 자료와 현지 관계 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고찰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개막식 행사는 9개의 기를 든 군인들의 사열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들이 들고 있는 기는 흰색 말털로 만들어졌으며 평화와 안녕을 상징하는 것으로 칭기스칸 시대부터의 전통이며, 복장은 유럽식 군인복장으로 구 소련의 영향으로 본다. 개막식에 거행되는 축하공연은 대부분 몽골인들의 유목 생활과 관계된 춤으로 말달리기 모습을 표현한 춤, 연료로 사용되는 말똥을 줍는 춤 등으로 몽골 전통의 민속복을 착용한다.

2. 경기복식은 씨름복, 사수복, 말경주 복식으로 구성되며, 씨름복은 등과 소매만 있는 독특한 형태의 상의와 짧은 팬티형 하의, 전통모자, 전통신발로 구성된다. 의복의 소재는 여러 겹 겹친 붉은 색이나 푸른 색 비단질감의 천에 흰색 실로 수를 놓아 만든다. 사수복은 몽골의 대표적인 민속복 델과 전통모자로 구성된다. 남자들의 경우는 전통모자와 함께 유럽식 중절모자를 병용하고 있다. 말경주 복식은 말을 타고 달리기에 편안한 형태인 허리아래길이의 짧은 상의와 바지로 구성되며, 기수가 어린이들이므로 이들에게 어울리는 밝은 색과 장식이 사용된다.

3. 몽골 일반인 참가자들의 복식은 서구화되었으며 특히 젊은이들은 서구문화에 민감하여 서구풍의 자유분방한 옷들을 즐겨 입는다. 청바지가 흔하고 여자들은 여름에 과감히 노출된 옷을 즐겨 입는 것도 특색이라 하겠다. 노인들은 대부분 계절에 관계없이 몽골 전통 옷인 텔을 입는다.

### 참고문헌

- 1)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지역정보센터 (1995). 몽골편람. 대외경제연구원. pp.33~34.
- 2) 염기성 (1996). *Chinggis Khan - Mongolia*. (주)지 에 프. p.10, pp.150~152, p.145, p.146.
- 3) 박원길 (1999). 몽골의 문화와 자연지리. p.3.
- 4) 박원길 (2001).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역사와 민속. 민속원. pp.203~210.
- 5) 박원길 (1999). 몽골의 문화와 자연지리. 민속원. pp.33~35.
- 6) 경기도 박물관 편 (1999). 몽골 유목문화. 경기도 박물관. p.140.
- 7) 유원수 (1994). 몽골비사. 도서출판 혜안. p.43, 65, 78, 80, 99, 100.
- 8) 元史 卷七十九 志第七十九 輿服一
- 9) 임명미 (1992). 몽골복식. 도서출판 경춘사. pp.741~743.
- 10) Walther Heissig · Dominique Dumas (1995). *The Mongols*. Pinguin-Verlag. Innsbruck / Umschau-Verlag. Frankfurt Main. p.118.
- 11) 신현덕 (1999). 몽골풍속기. 혜안. p.239.
- 12) 박원길. 앞의 책. pp.410~423.
- 13) 위의 책. pp.434~436.
- 14) 권오성 · 김선례 · 김태곤 · 임동권 · 정병호 (1992). 몽골민속. 북조리. p.103.
- 15) 박원길. 앞의 책. pp.441~445.
- 16) 위의 책. p.447.
- 17) イナシシロブ外 3人/ボルマ、ムンフザヤ譯(2000). 몽골歷史博物館ア・コム社 p.26, p.29, p.36, p.37.
- 18) 박원길. 앞의 책. p.136.
- 19) 염기성. 앞의 책. p.179.
- 20) 유원수. 앞의 책. p.176.
- 21) 박원길. 앞의 책. p.131.
- 22) 염기성. 앞의 책. p.114.
- 23) 신현덕. 앞의 책. p.244.
- 24) 위의 책. p.245.